

설교 복기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 그냥 읽어도 되지만 헬라어가 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이 다 번역이거든요. 번역이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다 시피 오역입니다. 100% 정확하게 그걸 다 담아낼 순 없어요. 제가 이제 독일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단어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발음을 그대로 하면 베르클리카이트 *Wirklichkeit*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wirk* 스펠링이요. 알파벳 스펠링으로 하면 그래요.

제가 일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구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알파 베타 거기서 나왔답니다. 헬라어가 그렇게 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뭐 유타 이렇게 쭉 오메가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영어로 에이 피 이거를 붙여서 알파벳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독일어 베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게 베르크 뭐 이 여러가지로 변형, 명사 변형이 되는데 어근은 WIRK예요. 비르크 뭐 작용 작용한다 뭐 움직이는 힘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근으로 해서 베르클리카이트 추상명사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철학하고 인문학하고 신학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도 마땅치 않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reality* 라고 영역을 해요 리얼리티하고 베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독일어 하고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영역할 때는 독일어 베르클리카이트를 다 리얼리티로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뭐 현실성 뭐 실제 뭐 등등으로 하긴 하는데 통일된 단어는 없어요. 요게 이제 리얼리티 하고 다른 차이는 베르클리카이트가 실제 그리고 확실한 것 그렇게 말하는데 *Reality is process*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변증법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 자체 그걸 이제 가리켜요. 개념적으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테제와 안티테제가 이렇게 작용해서 진테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테제입니다. 명제예요. 테제.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안티테제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변증 법칙의 작용을 통해서 신테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존재한다 이런 대답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변증법적인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문제라서 종말론적인 그 차원까지 내다보는 전체의 현실 그걸 가르쳐서 베르클리카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어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힘든 겁니다. 그건 모든 번역에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그 프뉴마 *πνεῦμα*라고 하는 거 이게 번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가장 간단하게는 영과 바람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영과 바람이 어떻게 같은 단어로 얘기하냐 우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과 바람, 그런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도 저는 그 싸르크스 *σάρξ* 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 그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잖아요. 그 싸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맨 뒤에 11절인가 거기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을 뭐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싸르크스라고 쓰고 맨 나중에 나온 몸을 살린다고 할 때는 이게 소마 *σῶμα*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육신이나 몸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는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싸르크스하고 소마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같이 사용할 때도 있고 분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긴 했어야 돼요. 분명하게 앞에서는 바울이 싸르크스라고 하고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할 때 그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싸르크스는 인간의 정육 욕망 인간 내 본능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소마는 그 영과 대비되는 구체적인 우리의 몸 삶 이 전체를 가리키죠. 지금 이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두 단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육성 아니면 김아무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이렇게 단백질로서의 육체 이걸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시원하고 즐겁고 뭐 그런 거 다 우리 몸에 육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살린다는 게 아니라 그 인격체, 그 소마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을 총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헬라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학대학에서 뭐 3학점 인가 6학점 뭐 그런 정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태까지 성서 주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만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핵심은 성경의 그 원어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담고 있다 이거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설교할 때나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갖고 이거 다 고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쪽 내려오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생략해 놓고 그냥 우리말 번역된 것만 붙들고서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많이 그렇습니다.

참 그건 그렇고요. 설교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 대목에서 그 기독교가 여러 번 위기를 맞았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다음에는 정말 제자들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의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번 위기가 있었구요. 제가 그건 이건 뭐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걸로만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나 하는 것을 짚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금 우리는 그게 구원의 길이다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무도 십자가에 죽은 자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끝장 났어야 돼요.

두 번째는 60년대에요. 기원 후 6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흘러서죠. 요게 왜 위기냐 하면 이 60 년대에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 파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예요. 그래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인데 그때 그 공동체 나사렛파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60년대에. 베드로가 그때 죽었고요 바울이 그때 죽었고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열 두 제자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열 두 제자가 모두 그렇게 그 당시에 인정받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열 두 명을 임명한 듯이 말한 것은 후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이 대표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임명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승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것이 60년대였구요.

또 한 차례가 70년 이후입니다. 30년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위기고 60년대에 출중한 지도자들 세 명이 다 죽었으니까 위기고 그 다음에 70 년대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될 때거든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 종교로부터 율법 종교로 변화된 계기가 이 70년 예루살렘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죠. 이게 왜 그리스도 교회 위기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들을 더 이상 유대교가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축출한 거죠. 회당에서의 축출, 이제 허허벌판으로 내가 떨어진 거죠. 그 위기예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렇게 위기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수난도 있긴 했는데 그것 광범위하게 퍼진 거고요.

어쩌면 21세기가 또 새롭게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종교가 위태롭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더구나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가 계속가겠어요? 아니면 언젠가 지금 무당들처럼 아주 일부 사람들만 따르는 그러한 소종파가 되겠어요? 아니면 아예 다 사라질 수 있겠어요? 미래야 우리가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에 진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과의 관계는 늘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있으면 위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소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신앙의 그 본질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뭐 부흥시켜 봐야 거대한 어떤 파고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앞에서 언급했죠? 하마르티아 *ἁμαρτία*는 원어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나토스 *θάνατος*라고도 발음하고요 다나토스, 죽음의 즉 죽음으로의 충동이라는 심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죽음 다나토스 단어 와 연관된 겁니다.

죄는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냥 부도덕성 파렴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집중, 자기 몰입 그래서 일상의 과잉 전부 다 우리 자기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 과녁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거기서 회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부흥회 류의 회심 이런 걸 잠깐 생각합니다. 도박하던 사람이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거 탕자의 비유 이런 거예요.

빌리그래함이 왔을 때 그런 행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부 다닐 때 거든요 여의도광장에 우리 신학생들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막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크게 짓고 시작할 때예요. 그때 빌리그래함 목사가 와서 정말 대형 집회 열었거든요. 부흥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초청해서 회심시키고 다 그거는 인제 뭘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인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심은 돌아서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자기 중심으로부터 자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몰아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잡아서 나를 초월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마음공부, 가부좌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회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의존함으로써 몰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를 벗어나야만 이제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요.

설교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율법의 극복이나 율법 해결이나 요 문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하게 전달을 됐는지 혹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모든 걸 알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될 우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확실하게 보고 아는 거 그를 전하는 겁니다. 그 자기 스스로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자는 계속 전통이 뭘 얘기했느냐를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어거스틴이 뭘 얘기했는지 그 루터가 뭘 얘기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뭘 얘기했는지 하여튼 두루두루 전반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메인 스트림에서 붙들었던 주제에 자기도 들어감으로써 자기 개인의 인식론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의존적인 거죠. 설교자도 계속 어거스틴에게 의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장 고급하게 가장 수준 높은 차원에서 어떤 걸 말하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되진 않으나 어떤 게 옳은 지 그런 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단한 그 교회 전통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점점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 청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청중들은 뭘 듣고 싶어 하나 자기를 강화시켜 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로 해결되냐고 대목을 설교하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제거했다는 사실

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그게 인간 삶의 모든 거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인간의 문명 종교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근거한 건데 결국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동의 되세요? 이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 뒤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이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었는데 뭐가 시간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뭐 설교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충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바울의 눈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전제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레벨 또 다른 얘기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활 사건과 두루두루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전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 내가 깨닫고 전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성서 주석학자나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넨베르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들은 이야기가 이런 본문에 해석하는데 밑바탕이 되는지 아닌 지는 모르겠어요. 신의 아들을 죽인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을 보니 율법의 죄와 죽음이 확실하게 까발려진 거다 그 한계가 드러난 거다 그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기대할 게 없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기특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요 단락이 이해가 되면 기독교의 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다 예수가 뭐 병자 고치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사람들 모으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때 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문명과 그리스도 철학 그것의 철학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애굽의 여러 짱짱한 그 학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아나온 겁니다. 이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모든 신자들이 신학자가 될 순 없지만 그거 엑기스는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종교 형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좋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 우리가 신학적 영성 신비주의 혹은 철학적 사유 기독교 그 케리그마의 진수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씩 그래도 가는 노력은 필요하죠.

프뉴마를 설명하다가 50층 꼭대기에서 깃털 하나 떨어진 거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에 불과하지만,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 이해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너무 뻔한 거야 상투적인 거야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 일상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 없이 얘기했어요.

딸들한테도 맨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아요. 실감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2023년 7월16일오후 1시 35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상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50년 전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으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른 길에 인생살이를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30년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30년 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뭐 나중에 온라인을 두고 볼 분들도 계시 계시겠지만 이 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우주론적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거를 느끼면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깃털 하나가 위에서 떨어지는데도 오만가지 우연한 힘들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상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간단해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도 이것도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주 전체와 연결하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 얘기하면 종말의 완성된 세계가 이 순간 안에 이미 선취의 방식으로 시작됐다 은폐, 숨어있다, 일상 안에 숨어있는 우주론적 생명 사건의 신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케리그마 구원 부활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되면 익사이트 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붙드는 게 말이죠. 이게 종말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스도교 신앙을 해서 되는지 그거에 느낌이 가면 정신 번쩍 차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설교 시간에도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전달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창조와 비평, 소셜 이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하기가 그렇네요.

여기 아주 인상 깊었던 설교가 두 편 나와요 하나는 자유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인간의 쓸모입니다.

자유인은 존엄사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말하고 있는 배경은 미래의 인간세계에서 8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존엄사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85세가 되면 그럼 이제 존엄사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좋은 음악 틀어 놓고 뭐 두루두루 그런 세리머니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85세 되도 그 사람은 국가나 모든 사회의 도움을 일절 못 받아요. 다 완전히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다수는 그 85 세 존엄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로 쓴 소설이에요.

인간의 쓸모, 그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있더라고요. 이걸 가장 수준 높은 1% 부자들이 하는 삶의 세계 중산층 이런 하층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인공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운명이 그래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계돼서 나와요. 그 집에서 학교도 안 가요. 애들은 학교라고 하는 개념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연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뭘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접속한 대상이 있는데 애가 C그룹에 속하네요. 애를 통해서 학교가 뭘지 뭐가 뭘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배우게 돼서 이 아이가 완전히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그 B그룹의 세계로부터 저쪽 세계로 처음으로 태어나서 15살인가 그때 처음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로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